

2004 성탄절 메시지

한 아기의 탄생

본문: 이사야 9:6~7 / 하용조 목사 / 2004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상 모든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마지막 순간,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전 700여년에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예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듯 막연하게 이 예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23절에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응답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탄생의 본질적 의미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탄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첫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

연, 혹은 또 하나의 실수가 아닐까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수 천년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역시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사랑해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둘째, 메시아는 그냥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응답으로 오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 일을 해석해 보려는 유혹을 품고 있고 그 논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동정녀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자와 남자에 의해 태어났다면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므로 그 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현대인의 이성을 뒤집는 말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셋째, 성경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증언이요 영적 통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사야 7장 뿐 아니라 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9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만 이야기한다면 진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냐'는 물음입니다.

첫째, 그 분은 처녀에게서 잉태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이 메시아는 우리 모두를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셋째, 그 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있습니다. '정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능력과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는, 불의, 절망, 전쟁, 테러가 지배하는 이 땅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메시아의 이름을 네 가지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모습, 둘째는 하나님의 모습, 셋째는 아버지의 모습, 넷째는 왕의 모습입니다.

첫째, 기묘자이며 모사입니다. '기묘자'는 기막힌 지혜를 가진 조연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며 응답해 주실 분이 메시아입니다.

둘째, 그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는 힘, 권위, 창조 등을 떠올립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하나님으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끝이 없으십니다.

셋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아버지는 내 가슴에 있고 나를 품고 사랑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시라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와 풍요, 화목을 주는 왕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열심

7절을 보시면 세 가지 예언을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지금 축하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 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분의 의미를 새로이 가슴에 새기는 날이 성탄입니다. 이 말씀은 성탄을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로 통치하시는 무궁한 분이십니다. 그 분이 오시면 이 땅에 하

나님의 나라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 마다 그러할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으로 오십니다. 다윗의 위에서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메시아는 한 분입니다.

셋째,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운영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반드시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좌절과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순간과 찰나, 죽음과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을 꺾지도 막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의 현실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는 여리고 성 앞에 서있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다 파괴할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죽음, 좌절을 모두 파괴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믿음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난 우리나라가 잘될 것을 믿습니다. 통일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걱정 마십시오. 직장을 잃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분의 위대함을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한 번도 예수 탄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최문경pink1969@onnuri.or.kr

* 출처 : 온누리신문